

소독의 중요성 인식 높으나, 실천은 낮은 것으로 분석

- 대부분 주 1~2회 소독 실시로 보다 적극적인 실천운동 전개해야 할 것 -

지난 10월 18~19일 충북 괴산 화양 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양계인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7년만에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양계인을 대상으로 설문 답변을 받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117명으로 육계인 59.8%(70명), 채란인 24.8%(29명), 종계인 15.4%(18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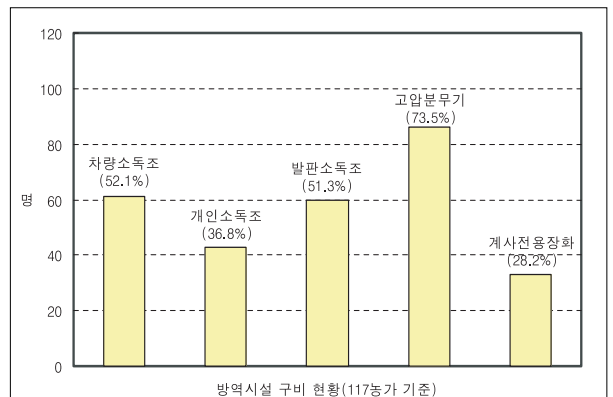
- 편집자주 -

1. 귀하의 농장 방역 시설구비 현황은?

설문에 참여한 농가의 농장규모는 2만수 미만 11.1%, 2~5만수 미만 56.4%, 5~10만수 미만 29.1%, 10만수 이상 3.4%의 규모로 5만수 미만의 농장이 70% 가까이 차지했다.

이들 중 농장의 방역 시설 구비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압분무기 73.5%, 차량 소독조 52.1%, 발판소독조 51.3%, 개인 소독조 36.8%, 계사전용 장화 28.2%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육계인 32.9%, 종계인 27.8%, 채란인 17.2% 순으로 계사전용 장화를



<도표1> 농장 방역 시설구비 현황

구비하고 있고, 종계인 72.2%, 육계인 51.4%, 채란인 38.0%순으로 발판소독조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했다.

11월부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정부, 관련기관 및 본회에서는 ‘농장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동안의 발생 양상을 볼 때 철새로부터의 전파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면서 전국의 양계농가들은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천하는 의지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2. 계사 내·외부소독 주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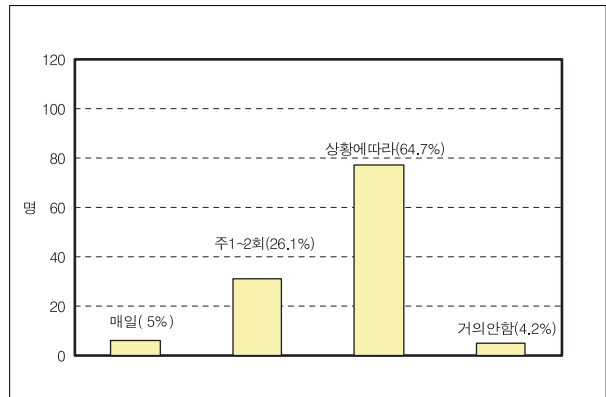
양계인들의 질병 방역 실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계사 내부, 외부 소독 주기에 대해 조사했다.

계사 내부소독은 매일한다 5.0%, 주1~2회 26.1%,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64.7%,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4.2%로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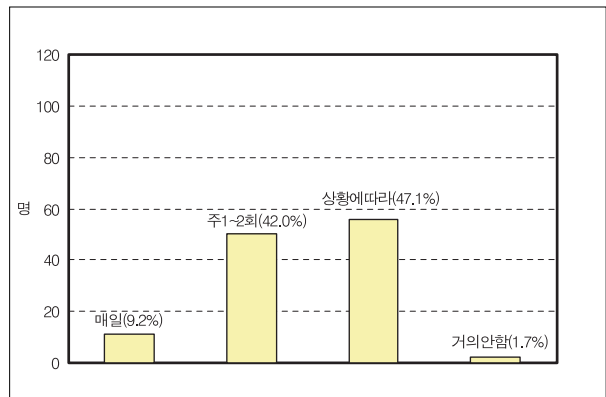
계사 외부소독은 매일한다 9.2%, 주1~2회 42.0%,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47.1%,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1.7%로 답변했다.

한편, 방역실천의 기초가 되는 소독에 대해 소독의 중요성 때문에 실시한다는 답변이 9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기타의 견으로 위안을 삼기 위해라는 의견이 6.0%로 조사되었다.

즉, 1번 문항 결과로 대체적으로 많은 수의 농가가 소독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소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역실천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방역관리를 요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방역실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사 소독에 대해 농가에서는 적극적인 실천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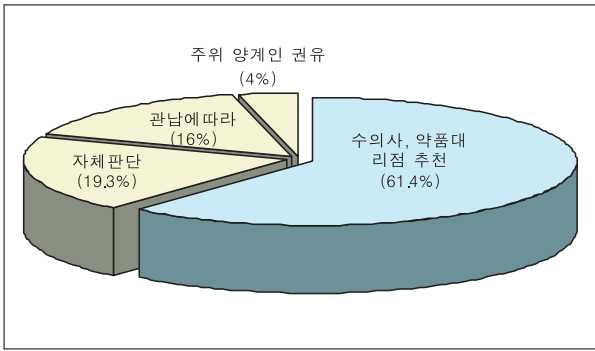
〈도표2〉 계사 내부소독 주기



〈도표3〉 계사 외부소독 주기

3. 소독약 제품 선택 및 사용 방법은?

소독약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의사나 약품 대리점의 추천 61.4%,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구입 19.3%, 관납에 따라 15.8%, 인근 양계인(장)의 권유로 3.5% 순으로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양계농가가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4〉 소독약 제품 선택 방법

한편, 소독약 구입방법은 자체적으로 구입 51.4%, 정부공급(관납) 48.3%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약품은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나뉘는데 혼합하여 사용한다면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소독약품 사용에 있어 농가에서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한 가지만 사용한다 55.9%, 혼합 사용한다 17.8%, 절대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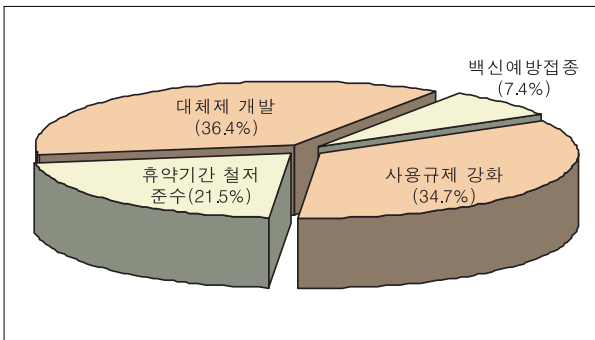
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르면 소독약 사용방법에 대한 농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금년 재발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 2차례 발생으로 혹여나 매년 발병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가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재발할 것이다 64.3%,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27.7%, 모르겠다 8.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11월부터 AI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에 돌입하면서 철새와 오리 등 특별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 농가에서도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

5. 양계산물 항생제 잔류 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도표5〉 항생제 잔류 방지를 위한 방안

2007년 축산물 생산에 있어 친환경 양계산물 생산이 화제로 떠올랐다. 양계농장에 있어 유기물 인증, 무항생제 인증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인수공용 플르르퀴놀론계 항균제에 대해 허가취소 및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있다. 이에 해당되는 물질인 노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오픈록사신, 페플록사신으로 이하 4가지 품목에 대해 금지 조치됐다.

항생제 잔류 방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농가에서는 대체제 개발 36.4%, 항생제 사용규제 강화 34.7%, 휴약기간 철저 준수 21.5%, 백신예방 접종 7.4% 순으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응답했다. 따라서 항생제 잔류를 막기 위해 대체제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서의 강력한 규제 강화가 문제를 해결

하는 실마리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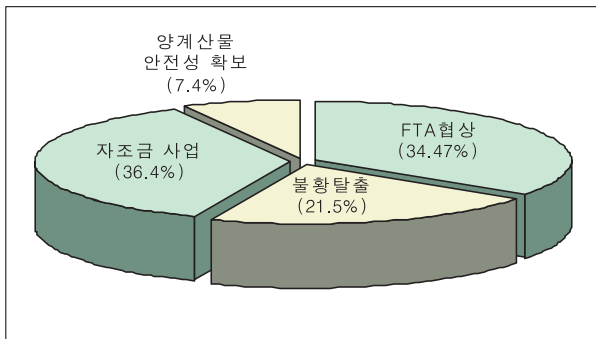
6. 최근 농장에서 문제시 되는 질병은?

매년 농장에서는 질병 문제로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대장균증 28.8%, IB 19%, 저병원성 AI 14.7%, 가금티푸스 9.8%, IBD 9.2%, ND 7.9%, 뉴모바이러스 7.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채란계는 44.8%를 차지한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육계는 47.16%, 종계는 44.4%로 대장균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6일에 개최된 위생방역대책위원회에서도 최근 밀집 사육으로 인한 호흡기 질병을 비롯한 복합적인 질병감염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내용을 다룬바 있다.

7. 양계업계 당면 문제는?



〈도표6〉 양계업계 당면 문제

양계업계 당면문제로 자조금 사업 36.4%, FTA협상 34.7%, 불황탈출 21.5%,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 7.4% 순으로 답하였다.

양계인 대회에 모였던 모든 양계인들은 대회장에서 한마음이 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FTA 적극 대처, 양계자조금 정착, 적정사육수수 유지 등을 결의 한 바 있다. 이날 결집했던 힘을 바탕으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8. 양계 의무자조금 실현 가능성은?

의무자조금의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4회째 걸쳐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총회가 무산되었다. 하지만 69.2%가 의무자조금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의지로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9. 전국 양계인대회 개최희망 주기는?

성황리에 진행된 전국 양계인대회는 1,400여명의 전국 양계인의 참석으로 지역간의 교류와 최근 이슈되는 정보 등을 주고받는 알찬 자리가 되었다. 이날 참석한 양계인들은 61.2%가 매년 개최되길 바란다는 답변을 보였으며, 그 외 격년제로 개최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35.3%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양계인들이 앞으로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정리 | 장성영 기자)